

# 부산 스포츠 이벤트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34**  
2023. 01

## 신년사

체육인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체육회 역할과 확장에 최선을!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 부산체육인

펜싱을 향한 진심을 담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 김용완 회장

## 영광의 주역

스키 볼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보남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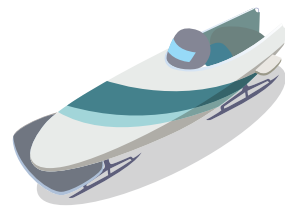
## 부산스포츠 히어로

코트를 지배하는 부산 라켓소녀단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 BSC 뉴스

2022 부산 체육인의 밤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신년사

체육인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체육회 역할과  
확장에 최선을!

-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 부산체육人

펜싱을 향한 진심을 담다

- 부산광역시펜싱협회 김용완 회장



## 영광의 주역

스키 볼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보남 부회장



## 부산스포츠 히어로

코트를 지배하는 부산 라켓소녀단

-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 BSC 뉴스

2022 부산 체육인의 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 체육인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체육회 역할과 확장에 최선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체육인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부산체육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체육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 4년간 더욱 매진하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비로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국내  
스포츠 대회와 국제 빅 스포츠 이벤트가 지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던 것처럼, 2023년 한 해도 체육인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호인에서부터 전문선수까지 스포츠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더 확장된 체육회를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스포츠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로 재정을 안정화시키며, 스포츠 인권과 가치 확산을 강화하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발전으로의 선순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 하여 동호인에서부터 전문선수까지 모두가 스포츠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 체육인들 모두 소원했던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펜싱을 향한 진심을 담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

김용완 회장

펜싱이 순간적인 인기에  
따라서 관심받는 종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용완 회장은 20대 중반 무렵부터 일찍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IT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 라운지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즈음 김용완 회장은 펜싱과 인연이 닿았다.

“스포츠업과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이전까지 펜싱과 일절 관계가 없었기에 망설여졌지만, 부산 펜싱에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펜싱을 전문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김용완 회장은 피트니스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신경 써온 만큼 협회원들에게 펜싱을 즐길 환경이 쾌적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펜싱은 운동할 때 갖춰야 할 복장이 많다 보니 내부에 땀도 많이 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생에 민감하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때 비로소 펜싱을 더욱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펜싱 강국인 만큼 전문 펜싱 선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부산에도 갖춰져야 하는데, 그 시작이 ‘대회’이다. 대회를 유치하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호인이 활성화되며, 펜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선수층이 확보되고, 선수들이 성장해 실업팀이나 펜싱 관련 진로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오는 3월 중순 2023 국제 남녀 플뢰레 그랑프리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세계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권위 있는 대회인데요. 부산 최초로 진행되는 펜싱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협회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완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도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 등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 중이다.

“펜싱이 순간적인 인기에 따라서 관심받는 종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젊은 회장인 만큼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며 부산 펜싱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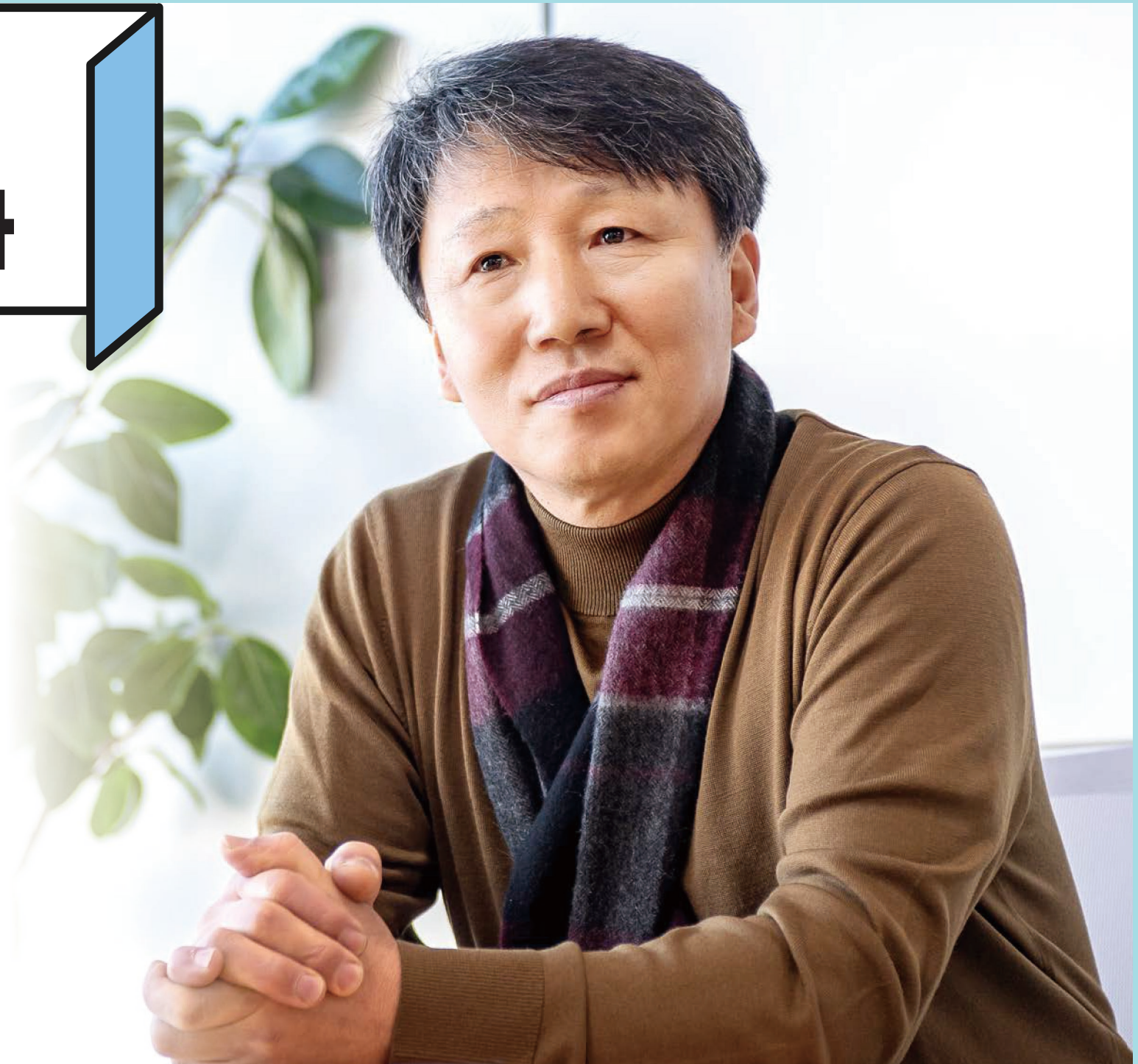


# 스키 볼모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보남 부회장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에너지 소비라든가 여러 면에서  
극한의 운동이라 육상 선수 이상의  
근지구력이 필요해요.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대관령에서 나고 자란 김보남 원로는 육상에서 먼저 재능을 펼치다가, 스키를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이다. 그의 체력을 알아본 체육 선생님께서 스키를 권했고 육상과 스키를 병행해 오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스키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육상을 한 게 스키를 타는 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에너지 소비라든가 여러 면에서 극한의 운동이라 육상 선수 이상의 근지구력이 필요해요.”

김보남 원로는 스키로 유명한 진부중학교와 진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출전한 선수권 대회 계주에서는 대학팀을 상대로 승리하기도 했다. 또,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한 그는 국군체육부대에서는 ‘바이애슬론’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선수 은퇴를 앞두고 그는 스키장이 아닌 부산을 선택했다. 가족 모두가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부산행은 스키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스키를 떠난 그의 삶이란 상상하기 어려웠다.

“운이 좋게도 부산에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부산을 대표해 전국동계체육대회까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딱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가 부산 스키 최초의 메달이었죠.”

이후 학교 스키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며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김보남 원로는 누구보다 선수와 지도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김 원로가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에 부산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6년 연속 종합 5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스키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맞서는 스포츠인 만큼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김보남 원로는 스키로 단련된 강한 정신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 코트를 지배하는 부산 라켓소녀단

2010년도에 창단된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부산의 여자 배드민턴 선수 육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작년 출전한 대회에서는 개인전·단체전·복식전 등 모든 종목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선수들은 대회를 위해 여러 훈련을 진행하지만, 코치가 선수들에게 대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기죽지 마라’는 것.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 점수 차가 크게 벌어져도 뒤집는 경우가 많다고. 그 덕분에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선수들은 ‘깡’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어린 선수들이 성장통을 이겨내며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안남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선수 생활을 쭉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가대표 등 선수 개개인이 목표한 바를 배드민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



## 2022 부산 체육인의 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29일(목) ‘2022 부산체육인의 밤’ 행사를 창립 이후로 처음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개식을 시작으로 참석 내빈소개와 한 해 동안 부산시체육회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물 상영, 부산광역시댄스스포츠연맹 소속 국가대표 선수단의 축하공연, 체육발전에 기여한 부산체육인들에게 시상하는 유공자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민선 2기 체육회를 이끌어갈 16개 구·군체육회장들이 참석해 앞으로 4년 동안 체육인들의 긍지를 높이고 안정된 체육계를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산체육을 발전시킨 부산체육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체육인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